

열왕기하 3.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 (왕하 3장 1-27 절)

들어가기

본 장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아합’ 왕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을 배신한 모압을 공격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설득하여 함께 모압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였고, 결국 그 제안에 동의한 ‘여호사밧’을 따라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도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을 공격하러 가던 연합군이 출발한지 7일만에 물이 떨어지는 위기를 맞게 되면서, 전쟁 차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던 ‘여호사밧’은 ‘엘리사’를 만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과의 전쟁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 북이스라엘의 제 9 대왕 ‘여호람’의 통치 (1-3 절)

- 1)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의 아버지는 _____ 어머니는 _____
 - 유다의 ‘여호사밧’ 통치 18 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
 -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만들었던 모든 바알 신상들을 제거함!
 - 12 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

- 2) 그러나 ‘여로보암’이 행한 죄는 본받아서 행하였습니다.
 - 그럼 ‘여로보암’ 왕이 범한 죄는 무엇이었나요?
 -
 -
 -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 신상을 제거하며 종교개혁을 시행했다기 보다는 자신에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제거한 듯!
 - 반대로 ‘여로보암’ 왕이 시행한 종교정책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하니 그대로 따랐던 것이 아닐까!
 - 결국 모든 우상은 자신을 위한 것!

2. 모압을 치기 위해 유다에게 연합군을 제안한 ‘여호람’ (4-12 절)

- 1)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 ‘메사’는 북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4-5 절)
 - 모압 왕 메사
 - ‘양을 치던 자’의 히/원 ‘노케트’는 목자와 양의 소유자를 의미
 - ‘아합’ 왕 당시 북이스라엘에 새끼 양 10 만의 털과 수양 10 만의 털을 조공으로 바침!
 - 참고: 몇몇 학자들은 새끼 양 10 만의 털을 암 양의 털 혹은 새끼 양 자체로 해석함.
 - 아무튼 당시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이는 분명 큰 부담이었을 것!!
 - 그런데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병약한 통치가 하게 되자 즉시 조약을 파기하고 북이스라엘을 배신하기로 결정!

2) 이때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은 즉시 모압을 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6-7 절)

- 그럼 모압을 치기 위해 ‘여호람’이 한 일은 무엇인가?
 - ①. 온 이스라엘을 돌아봄! (6 절)
 - 여기 ‘돌아보았다’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친히 점검하고 소집하였다는 뜻!
 - ②. 유다에 사신을 보내어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을 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청함!

-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가지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군사와 병거와 말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였다는 것!
-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 그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요청을 받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 단번에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전쟁에 참여할 것을 결정!
 - 7 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 >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전에 ‘아합’ 왕이 아람을 공격할 때도 똑같이 말하고 함께 참전했음! (왕상 22 장)
 - > 결국 ‘여호사밧’의 문제는 아무리 그의 의도가 순수하고 좋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계속 악한 북이스라엘 왕들과 계속 교제하였다는 것!
 - > 잘못된 교제와 악과의 타협이 항상 문제!!

3)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모압을 칠 것인지 물었습니다. (8-9 절)

- 그럼 당시 ‘여호람’은 왜 ‘여호사밧’에게 모압으로 가는 길을 물었을까?
 -
 -

- 참고: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음
 - ①. 사해 북쪽 지역을 통해 요단강을 지나 모압 북쪽으로 들어가는 길
 - ②. 사해 남단을 돌아 에돔 북편을 지나 모압 남쪽으로 들어가는 길
 - 그런데 이 길은 1 번 길보다 길이 험하고 한참을 돌아가야만 함!

- 그런데 ‘여호사밧’은 2 번째 길을 선택하여 추천함!
 - 참고로 ‘여호사밧’이 2 번 길을 선택한 이유는 3 가지 때문으로 추측
 - ①. 1 번 길을 선택한다면 길르앗 라못에 있는 아람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
 - ②. 2 번 길을 선택함으로써 에돔을 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
 - ③. 모압 사람들의 방어망이 남쪽이 훨씬 더 약했기 때문.
 - (굳이 위험하고 먼 길을 돌아서 자신들을 칠 것이라 생각지 않았음)

- 결국 ‘여호사밧’의 조연대로 북이스라엘과 유다, 에돔의 연합군은 2 번 길을 통해 모압을 치기 위해 출발하였음!
- 그런데 출발한지 7 일만에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바닥나고 말았음!! (9 절)
 -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
 - 결국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음!
 - 잠언 6 장 9 절이 가르치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늘 기도로 모든 일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

4) 이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죽게 하신다고 불평하였습니다. (10-12 절)

- ‘여호람’은 자신이 행한 잘못을 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처한 곤경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렸음!
- 이때 유다왕 ‘여호사밧’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여호와와 선지자가 없는지 물었음!
 - 지난 번에도 똑 같이 행동함!
 -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 그러나 늦게라도 물어보고자 했다는 것이 다행!!
- 이때 북이스라엘의 신하 중 한사람이 선지자 엘리사가 근처에 있다고 알려줌!
 - 특별히 11 절 주목!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즉시 깨닫고는 ‘여호람’과 에돔 왕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감!!

3.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 물과 승리를 예언해 주는 ‘엘리사’ (13-20 절)

- 1)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 온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며 거절하였습니다. (13 절)
 - 이는 곧 비록 ‘여호람’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 세웠던 바알 신상들은 다 치워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바알의 선지자들은 곁에 두고 있었음을 지적한 것!
 - 이때 ‘여호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하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제차 도움을 청했음!

- 2)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도와 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14-15 절)
- 비록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합’을 돕고, ‘아하시야’와 함께 무역을 하고, ‘여호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 참고: ‘여호사밧’의 선행 (역대하 17 장 3-9 절)
 -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
 - 이때 ‘엘리사’는 특별히 거문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고, 그가 거문고를 연주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하였음!!
 - 그럼 왜 ‘엘리사’는 거문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을까?
 -
 -
 - 참고로 사무엘상 16 장 23 절을 보면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이 떠나고 새 힘을 얻었고, 10 장 5 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블레셋으로 돌아갈 때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며 찬송하던 선지자들을 만나자 여호와와 신에 크게 감동하기도 함!
- 3)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사’가 전한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16-19 절)
- 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 것! (16 절), 그러면 바람과 비도 없지만,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 모든 군사와 짐승이 마시게 될 것! (17 절)
 - ②. 모압을 연합군의 손에 붙여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 (18-19 절)
- 4) 이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소제를 드릴 때,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물이 개천에 가득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20 절)
- 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소제를 드릴 그 시기에 맞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은 구원이 성전 예배와 연관되었음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이라 해석!
 - 곧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
- 5) 아침에 일어난 모압군은 맞은 편 물이 피처럼 붉게 물든 것을 보고,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서로 내분을 일으켜 싸워 흘린 피로 착각하였습니다. (22-23 절)
-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 모압군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도록 역사하신 것!
 - 결국 스스로 착각에 빠진 모압의 군사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 연합군 주둔지로 들어감!
- 6) 이스라엘 연합군은 자진해서 연합군을 찾아온 모압 군사들을 치기 시작하여 단번에 모압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였습니다. (24-25 절)

- 본문에 등장하는 ‘길하레셋’은 모압의 최남단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요새, 마지막 보루였음!
 - 참고로 오늘날 ‘케락’이라 불리는 이 도시는 중세 십자군들도 이 성을 얻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반복하였음! – 홍해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함!

7) 궁지에 몰린 모압 왕은 정예 군사 700 명을 거느리고 직접 에돔 왕의 진지를 공격하여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26-27 절)

- 아마도 에돔 왕의 군사들이 두 왕들 보다 약했을 것! ->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패함!!
- 결국 전쟁의 패배를 예상한 모압 왕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큰 아들을 죽여 모압이 섬기는 신 ‘그모스’에게 번제로 드렸음!
 - 이는 당시 모압의 패배가 ‘그모스’ 신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했기 때문!
 - 곧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면 ‘그모스’ 신이 도와줄 것이고 판단하고 행한 행위.
-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은 크게 격노하며 더 이상 모압을 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됨!
- 27 절 본문에 대한 몇 가지 해석
 - ①.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단순히 인간적으로 크게 당황해서 전쟁을 포기했다는 해석.
 - ②. 모압 왕의 아들까지 불태워 받치는 결사항쟁의 모습을 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전쟁을 포기했다는 해석.
 - ③.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일인데, 결국 그런 죄를 저지르도록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회의와 죄책감을 느끼면서 전쟁을 포기했다는 해석.

4.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

5. 중보기도 나눔